

동구,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속도

동 행정복합센터·구립복합공공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구가 생활중심 공공시설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10만3천여 동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구는 사업비 260여억 원을 확보해 공공청사 건립(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다.

먼저 제17구역 재개발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민들에게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제12동 행정복합센터(제12동 196-3번지 일원)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제12동 행정복합센터에는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마을사랑채 등이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건물 노후화와 업무 공간 부족 등으로 미래 행정수요 대비와 주민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동명동과 학동도 행정복합센터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동명동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마치고 최근 설계용역

작상보고회를 진행했으며, 학동은 지난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6월 계약심사 이후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SOC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12동과 동명동, 학동 등 3개 행정동에 조성될 행정복합센터 신청사에는 행정센터를 비롯해 주민건강센터, 마을사랑채,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출입이 잦은 공공시설에 화장실, 주차장, 무인 민원기 설치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세심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산1동·지산2동·서남동·학운동·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지하 화장실 개선, 천정 교체, 화장실 바닥 누수공사 및 배관공사,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 지하주차장 진입로 포장 등을 진행해 이르면 오는 7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서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총 21회로 확대(시술별 상이)…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서구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가정이다. 체외 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난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결 배아는 최대 7회, 난 44세 이하이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 수정도 최대 30만 원을 5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시술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기

준이 없어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중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경우에는 '광주형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 신청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062-350-416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달호 기자

순천체력인증센터, 3기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순천시 체력인증센터는 오는 30일~31일 이틀간 제3기 체력증진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체력증진교실 3기는 6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8주간 월·수·금 주 3회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개 반으로 나눠 40분씩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체력측정, 요가수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온라인 운동상담) 또는 순천체력인증센터(061-749-6448) 전화를 통해, 각 반별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순천=조순익 기자

전남교육청, 2026년까지 무석면학교 조기 실현

5년간 1296억원 투입...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완전 제거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 중인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26년까지 완료, 무석면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로 했다.

2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지역 내 전체 학교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석면 해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현재 제거율은

62%이다.

올해는 418억 원을 투입, 176개 교의 석면을 제거하는 등 67%의 제거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12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100%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석면 제거 작업 유해성에 대한 학부모·교직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석면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동안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진하는 석면 철거 학교는 미리 공개할 예정이다.

석면철거 뒤 발생할 수 있는 잔재 등에 의한 석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제거 전 과정에 수요자와 외부전문가·학부모·환경단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참

여시키고 있다.

학교 내부는 물론 인근 지역 사회가 석면에 오염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석면제거 교실은 비닐로 완전 밀폐하고 학교 주변에 측정기 등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석면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안전한 철거가 우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광산구, 생활갈등 해결 돕는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

양성교육수로 주민 8명 위촉...충간소음 등 조정·중재 활동



광산구가 충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이웃갈등 자치 해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91명이 교육을 받은 가운데, 이들 중 8명이 처

음으로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위촉장을 받고 생활갈등 해결을 돕는 소통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이웃갈등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062-959-2642)에 충간소음, 흡연, 주차문제 등 갈등민원이 접수되면, 2인1

조로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활동 목표다.

아파트 거주율이 84%(2021년 7월 말 통계청 발표)로 전국 최고 수준인 광산구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웃 간 갈등 조정 수요' 대응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가제도가 조기 정착해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아파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조정가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해 조정·중재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교(원)장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성료

다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환경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5~27일 관내 교(원)장 4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관리자과정 직무연수'를 성료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는 4183명의

다문화 학생이 297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전체 학교의 94%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교육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다문화친화적 환경 조성을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학교 관리자로서 교(원)장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를 연수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광주수창초 배창호 교장은 "다문화 가정의 한 유형인 고려인의 정착 과정과 생활 모습을 살펴봄과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학생들의 삶을 잠시나마 이해해 볼 기회를 가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학습한국어 지도의 실제', '한국어교육과정의 이해', '다문화교육지원단 연수' 등 대상별·내용별 다양한 연수를 운영해 전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힘 쓰고 있다. /김도기 기자

전남교육청, 22개 시·군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

전남교육청이 1학기 동안 지역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29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영암을 시작으로 이달에 만 6개 시·군에서 학생·학부모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은 학부모 연합회·2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학부모에게 종합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특강 ▲학생·학부모 대상 1대 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컨설팅 등 3개 영역으로 채워졌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설계 지원·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입 상담 지원을 더욱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